

掘한바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길이 5m가량되는 石脈의 背面이 마치 龍身後半部와 같은 形狀으로 地下에 묻혀 있었다. 이 龍身形의 石脈은 無量壽殿基壇地臺石 바로 밑으로 연이어 延長되어 있었다.

2, 浮石寺境內 西南

에 자리잡고 있는 俗稱 善妙井底에 化龍遺蹟이 남아 있다는 俗說을 말하기 爲하여 길이 5m의 지름 二·二m의 우물물을 파내고 調査한바 井底에는 板石이 잘려있을 뿐만 다른 遺蹟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우물의 下半部는 方形築石을 이루고 있어서 古格을 남기고 있으며 上半部는 圓形築石이었다.

3, 浮石寺東丘에 서있는 圓融國師碑의 北側에 나란히 半埋沒되어 있었던 蓮華彫形으로 된 花崗石碑座와 屋蓋形으로 된 碑蓋를 調査했으며 地下 五〇cm에서 그 碑座의 地臺石과 碑座部材들을 發見했으나 碑身은 出土되지 않았다.

4, 奉化郡 勿野面 北技里寺址에 남아 있는 石造如來坐像(佛頭는 浮石寺無量壽殿內保管中)의 光背石을 發見하고자 同坐像의 돌레를 發掘한바 佛臺座의 西南部地下 四〇cm에서 完全한 舟形光背를 發見 同寺址에 保存措置를 했 다. 이로써 同 石造如來는 各部를 남김 없이 復原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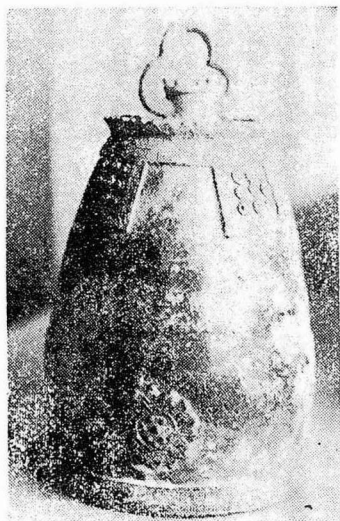
高麗梵鍾의 新例 (其九)

黃 壽 永

이 곳에 소개하는 二口는 모두 小鐘으로서 금년에 들어 새로 調査한 것으로서 民間所藏品이다. 近年에 이와같은 小鐘類가 多數出土되는 까닭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全國 大小 寺庵址에 대한 古蹟探索의 結果인 바 모두 電波器具를 사용하고 있다.

(1) 靑銅小鐘 서울忠武路 金載崇氏 所藏(寫眞)

全高一七·一cm에 불과한 小鐘으로서 鐘體下部에 重壓에 依한 破裂線一條가 보이는 以外는 完好하다. 이 鐘은 通式을 따라서 四乳廓(各九乳로 乳帶雷紋)上·下帶(各二重雷紋)가 배치되었고 乳廓間에는 下帶에 接近하여서 蓮花重瓣紋 壇座와 飛天紋이 交代로 各二씩 周回되었 으며 銘文은 찾을 수 없다. 鐘頂部에 이르러 如意頭文이 上帶와 接하여 立狀帶을 이루었 으며 鈕部는 特異한 樣式을 이루고 있다. 即 頂部 中央에 작은 圓筒이 있어 鐘內와 貫通되어 있는데 그 上緣에 六顆의 珠文이 둘러 있어 甬筒으로 보이 나 龍形은 없고 그 代身에 形鐘鈕가 이 小圓筒 兩側에 連結되어 懸架케 되어 있다. 이와같은 樣式은 이미 그 先例(註)를 본바 있으나 稀貴한 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鐘體는 細長하며 전면에 는 靑錄鑄가 덮여 있는데 各部紋樣의 매치가 단정하 고 彫紋 또한 織



細刻明하여서 비록 小鐘이나마 優作이다. (身高 一三·四cm 上徑 六·〇cm 下徑 八·三cm 一〇·〇cm 口緣厚 〇·八cm) 出土地未詳으로서 日政時發見品이라 한다.

(2) 香寂庵小鐘 서울 蔣奎緒氏 所藏

慶南地方에서 出土(一九六七年頃)되어 大邱(考古堂)로 搬出된 것이다. 全高 十七cm 口徑 十一·七cm(厚 一·五cm) 上徑 七cm 龍鈕高二·八cm 通式으로서 四乳廓(各九乳로서 乳帶는 三角斜線紋)이 있고 上帶(單瓣伏蓮紋)와 下帶(雷文)의 鐘腹下面에는 飛天과 蓮花紋 撞座 各二座가 交代로 배치되었다. 鐘頂에는 上帶와 接하여 立狀蓮花紋帶가 둘러 있으며 甬筒과 雙龍이 있다. 銘文은 鐘體 兩飛天紋 사이에 三行으로 다음과 같이 陰刻되어 있다. (字徑約 一cm)

「香寂菴」 施主」 全道至」

鐘體에 높음은 아니보이며 黑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火焰을 받은 때 문일 것이다. 形態가 完全하고 彫飾 또한 纖弱한데 年代는 麗末로 降下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註) 抽稿·高麗梵鐘의 新例(其三)(考古美術二)의 一九六一年 一月에 소개한 (二) 善山出土無銘青銅小鐘의 鈕가 이와同一形式임.

襄陽 陳田寺址 三層石塔과 石造浮屠

鄭 永 鎬

江原道 襄陽郡 降峴面所앞 卍스 停留場에서 下車하여 西쪽으로 卞道 路로 七km쯤 가면 屯田里이고 이 部落에서 다시 溪流를 따라 約五百m을 다가면 「탑골」(塔谷)이라는 곳 앞 가운데 三層石塔 一基가 現存하며 다시 溪谷을 따라 올라가면 六百m地點 小丘陵에 浮屠一基가 倒壞되어 있다. 이 一帶가 寺址로서 洞里에서는 「陳田寺」라 고 일컫는데 이 곳에서 「陳田」銘의 瓦片도 蒐集된 바 있어 陳田寺址임에 틀림 없는 것 같고 東國輿地勝覽에 記錄이 없는 點으로 보아 廢寺된지는 오래인 것 같다.

第八卷 第六號

通卷八十三號

이 곳은 事變後 收復 地區이어서 實적의 調査된 바 없었는데 一九六五年度 三月 과 十二月 兩次に 걸쳐 筆者가 現地를 踏査한 바 있기에 簡 單히 紹介하려 한다

一、三層石塔

本時 南向寺利로

石塔 前方(南쪽)에

는 長 五〇m의 石築址(高三·四m)가 있고 北쪽으로는 法堂址에 民墓가 있으며 周圍耕作地에는 瓦片이 散亂하다.

石塔은 新羅式一般型으로 二層基壇을 갖추고 있으며 相輪部는 露盤부 터 缺失되어 三層屋蓋上面에는 徑一〇cm 深一〇cm의 擦柱孔이 있을 뿐이다. 現在 下基甲石까지 雜石에 埋沒되어 下層基壇全面的 調査는 困難하여 東側만을 考察해 보았다. 長大한 地臺石위에 下基를 놓았으며 面石에는 兩隅柱가 있고 中央 一撐柱로 兩分하여 各區에 一座씩의 天衣가 流麗한 坐像을 陽刻하였는데 兩軀 共히 右肩偏袒의 衣文이 뚜렷하고 二重頭身光이 있으며 蓮華座위에 安座하였다. 甲石은 六枚石으로 짐작되며 上面에는 四分圓의 물뎡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다. 上層基壇面石은 一面二枚씩 全 八枚石으로 造立되었는데 兩隅柱가 있고 中央 一撐柱로 兩分하여 八部衆象을 陽刻하였다. 甲石을 三枚石으로 構成되었고 副椽이 整然하며 上面의 四分圓물뎡과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塔身은 各層마다 隅柱가 刻出되었고 初層에는 四方에 坐佛이 彫刻되었는데 모두 仰蓮座에 結跏趺座하고 二重頭身光을 具備하였으며 螺髮에 肉髻가 큼직한 如來像으로서 그 圓滿한 相好라던가 衣文의 彫刻手法이 秀麗함이 比할데 없다 할 것이다. 屋蓋는 各層 五段씩의 받침이 있고 上

